

덕유산리조트-주민 간 갈등 고조

(구천동)

주민들 “리조트 발생하수, 등방천 직접적 오염원” vs 리조트, “정기 수질검사·자가 측정으로 노력”

무주구천동 주민들과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지역의 관심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 인근의 주민과 상인 20여 명은 19일 무주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구천동지역 지방하천인 등방천의 주된 오염원이 되고 있다”며 오염원 제거와 함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6일 무주경찰서에 집회소고와 함께 7일부터 현재까지 항의시위 중이며 그동안 3차례의 협상과 상경 집회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주민들은 “구천동 지역의 젓줄 등방천이 상부지역인 리조트 단지 내 약 4km 구간 공동구와 연결된 휴관 등에서 오염원 누수와 침출수 유입이 확인됐고 이는 곧 생태계 파괴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0월 리조트 단지 내 약 3.1km 구간에 대한 CCTV 관찰 결과 약 190여 개소에서 균열, 파손 등으로 일부 누수 및 불명수 유입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맨홀 및 지중관 균열에 대한 개선 명령과 원상회복 등의 행정지도를 4회에 걸쳐 펼쳤으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별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리조트 측에서 예산을 책정해 보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보내왔으나 내년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 관계자는 “1년에 6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수질관리 전문의주업체를 선정해 매일 자가 측정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천동관광연합회 조병리 회장은 “부영 인수 후 시설투자 미흡과 서비스 마인드 부재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대표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겨울철 성수기 관광객들과 스키어들이 몰리는 황금 시기이니만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무주=전문선 기자

출생가정에 손세정제 축하선물

전주시, 라이온코리아와 업무협약... 내년부터 2년간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의 출생가구에 항균 손세정제가 축하선물로 지급된다.

전주시는 19일 손세정제 생산업체인 라이온코리아(주)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출생신고 하는 전주시의 모든 가정에 ‘아이! 깨끗해’ 항균 폼 핸드숍 세트를 출생축하선물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와 라이온코리아(주)가 최근 국가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을 조기에 극복하고 출생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가 출산 가정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출생축하선물을 증정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면서 이뤄졌다.

라이온코리아는 이날 협약에 따

라 향후 2년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에 현장에서 아기와 엄마, 아빠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품형 손세정제 250ml용기와 200ml 리필 2개로 구성된 ‘출생축하선물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라이온코리아(주) 관계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도봉구, 인천광역시 동구 및 서구, 충남 서천군 등과 올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로 출생축하선물 세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출생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참여단체인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5일 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인정 받아 대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을 받았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대외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상은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로 12년째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집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최근 4년간 약 100억원의 사회공헌 편당을 확보, 주거 취약계층 총 1203가정의 주거복지에 대해 주택개보수와 에너지효율개선, 주거비지원,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온 점을 인정 받았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오는 2019년까지 (사)프렌드아시아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동포들의 건강한 삶과 주거복지, 기술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전국자활기업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시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장려상)과 함께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 보육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장려상·포상금 300만원 수상... 보육품질 향상·맞춤형 보육 최선

전주시가 보육정책 관련 정부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장려상)과 함께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공공보육 확충 △맞춤형보육 업무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 추진 노력 및 결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평가했다.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일과 보육을 양립하는 맞춤형이 부부 등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육교직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왔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올해 1억 6,300만 원을 투입해 총 7,700여명의 안전사고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또한, 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적극 홍보해 현재

99%가 넘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맞춤형보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수시 현장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현장컨설팅과 종일반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의 정착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열린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50여개소 지원 등 전주시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극 힘써왔다. /김민근 기자

'전주 크레인 전복 사망' 업체대표 구속

지난 11월 9일 전주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으로 인한 2명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복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망사고에 고소작업대 안전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8층 높이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위험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새차 타이어 홈쳐 자차에 끼운 40대 입건

주차된 새차의 타이어 4개를 홈쳐 자신의 차량에 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2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A(44)씨의 차량에서 타이어 4개를 홈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타이어를 홈쳐 자신의 차량에 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타이어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차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이상민 기자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 승강기에 끼어 근로자1명 사망

19일 오후 1시 28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승강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34)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승강기 위판에서 작업하다가 벽과 승강기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